“부처님 전법길 우리도”…43일 1167km 대장정

〈2.9~3.23〉

미리 보는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



순례 접수
010-4958-6288 (지객 원명 스님)

주요 순례지

① 2월 11일
최초로 설법 이뤄진 사르나트


③ 2월 25일
최초사찰 죽림정사 법화경 설법지 라지기르


⑤ 3월 1일
마하파자파티가 출가한 바이샬리


⑦ 3월 14일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② 2월 21일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


④ 2월 26일
세계최초 불교종합대학 나란다대학


⑥ 3월 9일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


⑧ 3월 20일
금강경 설법지 쉬라바스티

부처님이 걸었던 전법길을 따라가는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는 43일 동안 1167km를 직접 걷는 대장정이다. 매일 새벽 3시 출발, 하루 평균 25km씩 무더위와 싸우며 강행군을 하게 된다. 기내 1박을 제외한 현지 42박 중 숲과 학교공터 등에서 텐트로 29박을 하고, 목욕과 빨래 등 개인 정비를 위해 숙소에서 12박을 하게 된다. 출가자 재가자, 남녀노소 모두 차별없이 평등하게 길 위에서 걷고 먹으며 정진하게 된다.

녹야원서 결사 발원

순례는 서울 인천에서 에어인디아를 통해 델리에 도착하는 2023년 2월 9일부터 시작이다. 2월 10일 델리에서는 다시 인도 국내선 비행기로 바라나시로 이동한다. 바라나시에서는 녹야원이 있는 사르나트로 약 25km를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날 순례단은 영불탑과 녹야원을 순례하게 된다.

본격적인 순례는 2월 11일 사르나트 녹야원에서의 ‘원만회향 발원 기도 및 입재식’으로 시작된다. 입재식 후 사르나트를 출발한 순례단은 6km를 걸어 갠지스강 선착장에 도착한다. 하선장까지 약 4km를 갠지스강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는 부처님 전법행에서 갠지스강을 건넌 일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다. 배를 건너 도착하는 모래언덕이 모래섬 항하사로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업을 씻는다고 전해진다. 람나가르에 도착한 순례단은 2월 12일 다시 출발해 카코리아에서 쉬브람푸르, 바부아, 체나리, 사사람, 손나가르, 파르사, 엄어와, 카파시야를 거쳐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에 21일 도착한다. 보드가야에서는 마하보디대탑과 수자타 마을을 순례한다. 보드가야에 이르러서 10일만에 숙소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

보드가야에 도착한 순례단은 2월 22일 기도법회와 함께 막간 휴식을 취한다. 보드가야에서 초반부의 힘든 여정을 잠시 쉬며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순례단은 2월 23일 다시 순례를 이어 보드가야에서 카이야, 비까이푸르를 거쳐 25일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영축산이 있는 라지기르에 도착한다. 라지기르에서는 영축산 기도법회와 함께 죽림정사, 아자트사투르 스투파 참배가 진행된다.

2월 26일에는 라지기르를 출발해 나란다 대학터를 거쳐 케웨이, 나가르나우사, 하지푸르에 도착한다. 이날은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중 하나인 파트마 간디교를 순례 중 건너게 된다.

기원정사서 결사회향

하지푸르에 도착한 순례단은 3월 1일 바이샬리에 도착한다. 1167km의 전체 순례 일정 중 513km를 순례한 사실상 반환점이다. 먼저 바이샬리에서 순례단은 근본사리탑터와 대림정사터를 참배한다. 이어 3월 2일 바이샬리에서 다르파리, 케사리야, 사다우아, 고팔간지, 두바울리야, 삐빠라까낙을 거쳐 3월 8일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르에 당도한다. 여기서는 열반당과 다비장 참배가 진행된다. 3월 9일 쿠시나가르에서는 보드가야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기도법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순례단은 3월 10일 쿠시나가르를 출발하여 세마라, 하르푸르, 브랫터와, 코리야를 거쳐 3월 14일 네팔 국경을 통과해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 도착한다.

순례단은 룸비니에 도착 즉시 기도법회를 열고, 룸비니 동산을 참배한다. 3월 15일 룸비니를 출발한 순례단은 다시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와 카필라바스투를 거쳐 피프라흐와 파르사, 지기나마피, 서드와푸르, 두르가푸르를 통해 3월 20일 회향지인 쉬라바스티에 당도한다.

쉬라바스티에 도착 전 천불화현탑 참배가 진행되며 쉬라바스티에서는 기원정사에서 기도 및 회향법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희 스님, 조계종 첫 비구니어산어장 지정

조계종, 7월 20일 증서전달
어산종장 보천 스님 지정도


7월 20일 비구니 어산어장 지정식 모습.

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어산어장이 탄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0일 어산종장 동희 스님을 비구니 어산어장으로 지정하고 증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문경 혜국사 주지(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감) 보천 스님을 어산종장으로 지정했다.

이는 ‘종단 어산어장, 어산종장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산어장은 어산 분야의 탁월한 재능 보유자로 어산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비구·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어산종장은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할 경우 지정된다.

특히 동희 스님은 이날 종단 사상 첫 비구니어산어장으로 지정돼 의미를 더했다. 스님은 진관사 수륙대재를 이끌며 어산종장으로서 불교의례 발전과 후학양성에 매진해 왔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늦게나마 비구니어산어장을 모시게 됐다”며 “앞으로 불교의례 발전을 이끌고 후학 양성에도 힘써 달라. 진관사 수륙대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어산어장 동희 스님은 “몸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어산종장 보천 스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종교차별 현장 신고하세요”

종교차별 신고센터 홈피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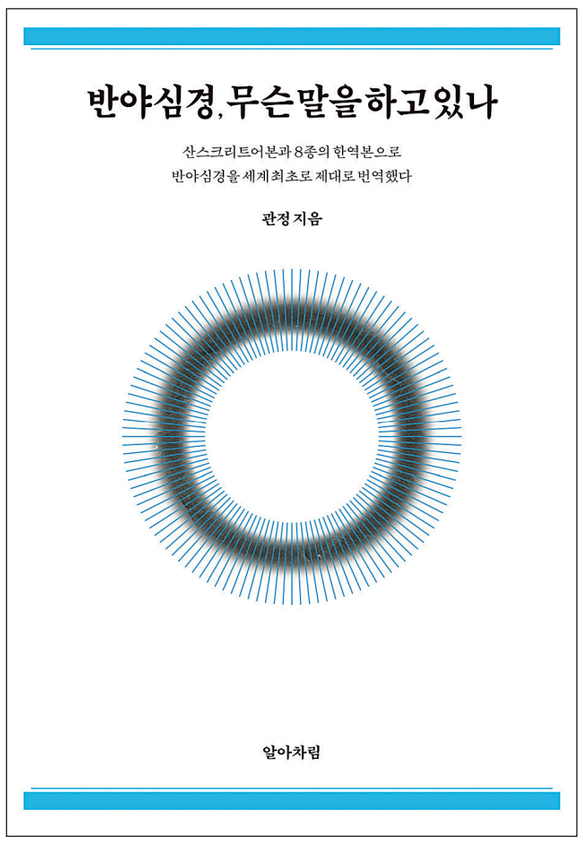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종교차별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는 7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종교차별 및 편향사태 대응을 위해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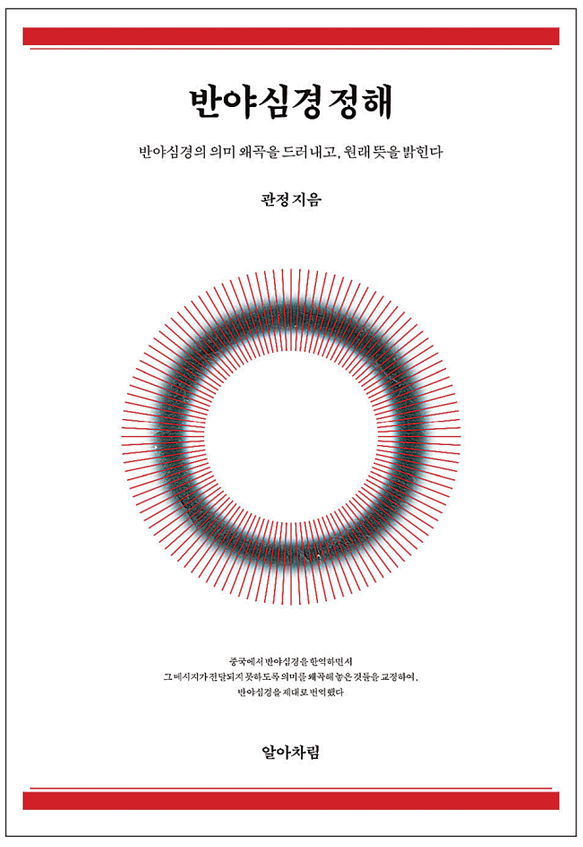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buddh.kr)는 △제보 △공지사항 △뉴스 △염불 △주어사 천진암 공부 모임 등으로 구성됐다. 제보는 간단한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가능하도록 만들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글의 난립을 막도록 했다.

공지사항에는 종교차별과 관련해 항의 성명과 사례, 각종 교육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뉴스에서는 다양한 언론과 매체에서 발행된 종교편향 관련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반야심경, 무슨말을하고있나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으로
반야심경을 세계최초로 제대로 번역했다
관정 지음
알아차림

| 관정 지음 | 220쪽 | 양장제본 | 16,000원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으로 반야심경을 제대로 번역하여, 반야심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또 반야가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고, 반야를 완성하는 수행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반야심경 정해
반야심경의 의미 왜곡을 드러내고, 원래 뜻을 밝힌다
관정 지음
중국에서 반야심경을 한역하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의미를 왜곡해 놓은 것들을 교정하여,
반야심경을 제대로 번역했다
알아차림

| 관정 지음 | 791쪽 | 양장제본 | 65,000원
저자가 15년 동안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문본을 붙들고 씨름하여, 세계 최초로 <반야심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해설한 역작이다.

중국에서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 하도록 의미를 왜곡해 놓은 것들을 모두 교정한 뒤 그것을 정확하고도 쉬운 말로 번역했다

현재 13개 언론에서 극찬리 보도중!! 운주사 불교서적 7월 월간베스트 1,2위!

책을 추천하는 말

- 관정 스님께서 난해하기 짝이 없는 반야심경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여, 정확한 말로 번역, 해설한 것은 반야심경 연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 당나라 현장법사 이후 가장 많은 불전을 번역한 전재성 박사**
- 관정 스님은 단순히 반야심경을 정확하고도 쉬운 말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을 연구하여, 반야심경이 한문으로 번역될 때 잘못 번역된 것을 모두 바로 잡았다. **– 〈반야심경과 마음공부〉의 저자 법상 스님**
- 관정 스님은 〈반야심경〉을 명료하게 번역해 놓았다. 관정 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을 접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반야심경〉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린다. 여태껏 그 어떤 〈반야심경〉의 번역도 이런 뜻으로 해석한 것이 없었고, 이렇게 분명한 언어로 번역한 것도 없었다. **– 방어산 은둔 비구 普信(보신) 스님**
- 관정 스님의 이 책은 〈반야심경〉 역해사(譯解史)에서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질 것이며,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영남대학교 철학과 최재목 교수**
- 〈반야심경〉 책은 일본에서도 많이 출판됐다. 관정 스님의 반야심경 번역은 일본의 그 어떤 번역보다 정확하다고 본다. **– 경북대학교 일문학과 이종환 명예교수**

※ 기타 책 내용 및 저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이 책을 검색해서 얻기 바랍니다. 사찰 단체 구입 시 특별 할인가로 제공.

알아차림 출판사 051) 516-0093, david1080@hanmail.net